

투자목적 및 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 채권을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국채, 지방채, 특수채, 은행채 등 우량 채권에 주로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편입 채권간의 상대적인 가치를 분석하여 저평가된 종목 발굴하고, 시장 금리 변동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듀레이션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운용으로 안정적인 이자수익과 함께 채권 가격상승에 따른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펀드내역

펀드규모(NAV) 1,769억 원

펀드유형 채권형

설정일

(운용펀드 : 2014년 02월 28일)

- 클래스C-F : 2014년 02월 28일

벤치마크 매경BP 국채 0~30년 70%+매경BP 특수채 AAA 0~10년 20%+매경BP 은행채 AAA 0~5년 10%

신탁업자 하나은행

환매대금 지급일

구분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시 이전	3영업일	3영업일
17시 경과후	4영업일	4영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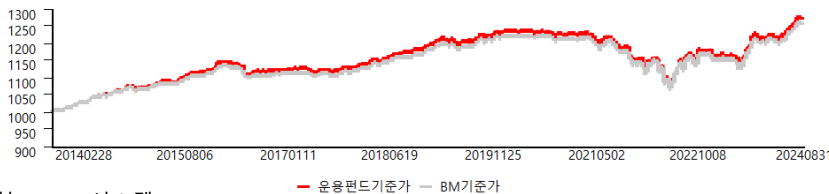
투자위험등급 4등급(보통위험)

1	2	3	4	5	6
---	---	---	---	---	---

펀드 운용 성과

	누적수익률							설정 이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2년	3년	5년	
운용펀드	-0.02%	3.67%	4.40%	8.62%	12.67%	2.83%	4.44%	26.41%
클래스C-F	-0.03%	3.65%	4.34%	8.50%	12.42%	2.48%	3.84%	24.70%
벤치마크	0.01%	3.59%	4.32%	8.35%	12.03%	2.67%	4.39%	24.90%

- 운용펀드 수익률은 보수 차감 전 수치입니다.
- 설정 이후 벤치마크 수익률은 운용펀드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상기 투자실적은 과거 실적을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실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클래스별 설정일이 달라 설정 이후 수익률은 클래스별로 상이하며, 보수 수준 차이로 인해 클래스별 성과는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
- 최초설정일 이후 전액환매가 된 클래스의 경우 기간별 누적수익률은 재설정되는 날로부터 재산정됩니다.



출처: AITAS 시스템

자산 구성 현황 (2024년 08월말 기준)

<전체>



<채권 종류별>



상위 10개 보유 종목 (2024년 08월말 기준 채권비중)

종목명	비중(%)	종목명	비중(%)
한국철도공사224	5.9	국고채권04125-3312(23-11)	3.7
중소기업은행(신)2212이2A-19	5.7	국고채권03250-2803(23-1)	3.5
국고01500-4009(20-7)	5.0	국고02375-2703(22-1)	3.4
국고00000-4903(19-2)	4.7	국고채권03250-2903(24-1)	3.2
국고01875-5103(21-2)	4.6	에스케이하이닉스224-3	3.0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사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

**보수 및 수수료**

**보수(순자산총액 기준)**

- 클래스C-F : 총 연 0.115% (판매 0.01%)  
(공통사항)

운용 0.085%, 신탁 0.01%, 사무관리0.01%

**선취수수료**

없음

**환매수수료**

없음

**시장동향 및 운용현황**

8월 채권시장은 월초 미국 7월 고용지표 결과 실업률이 예상외로 4.3% 오르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되며 미국채 금리가 급락하였습니다. 이후 7월 미국 PPI 쇼크, CPI 전망치 부합 등 물가 안정 전망까지 확인되자 견조한 매수 수요가 유입되며 미국 채권시장은 강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이후 소매판매 증가율 서프라이즈, 2분기 GDP 상향 조정 등으로 시장금리 낙폭을 일부 반납하였으나, 월말 잭홀 심포지엄에서는 9월 금리인하를 기정 사실화하고 50bp 인하 가능성도 열어놓아 시장 전망대비 훨씬 비둘기파적 분위기로 해석되었습니다. 국내 채권 시장은 역캐리 부담과 외국인 선물 순매수세 둔화에도 미국 경기 우려에 힘입어 약세 압력이 제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8월 금통위에서 이창용 총재는 시장금리가 과도하게 낮다고 지적했지만, 3개월 내 금리인하 여지를 열어놓은 위원 수가 2명에서 4명으로 확대되며 강세 모멘텀 지속하였습니다. 다만, 월말 공개된 2025년 예산의 정부안에서 내년 국고채 순증 규모가 83.7조원으로, 올해 대비 약 33.9조원 증액되자 금리는 월간 하락폭을 전부 되돌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 국고 3년 금리는 전월 대비 4.5bp 하락한 2.955%, 10년 금리는 +3.1bp 상승한 3.088%로 마감하였습니다.

韓 8월 기준금리는 만장일치 동결 (3.50%) 결정됐습니다. 통화방면에서 기존 '통화정책 기조를 충분히 유지할 것'에서 '충분히'를 빼고 3개월 이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 둔 금통위원이 기존 2인에서 4인으로 증가하는 등 지난 금통위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만 총재의 기자회견은 매파적인 스탠스 견지하였습니다. 부동산과 가계부채를 제외한 주요 요인들이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여건 조성된 가운데, 향후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과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른 주택가격 향방이 기준금리 결정에 주요하게 작용할 예정입니다. 최근 가계대출 추이 고려 시 10월보다는 11월에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 확대되는 상황입니다.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

9월 금리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이벤트는 8월 미국 고용지표(9/6)와 9월 FOMC (9/17-9/18)입니다. 7월 FOMC 의사록 결과와 8월 잭홀 미팅 이후 시장은 연내 최소 75bp 인하를 가점 중입니다. 미국 경기 둔화 및 연준 금리인하 사이클 시작으로 채권 금리 상승 압력은 크지 않겠지만, 미 경기 연착륙 가능성, 한은의 높은 가계부채 증가율과 부동산 상승에 대한 경계감 지속으로 금리인하 시점 및 횡수에 대한 불확실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다음 금통위(10/11)까지 기준금리 대비 국고금리의 역캐리는 역대 저점 수준으로 레벨 부담감 지속될 전망입니다.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 흐름이 나타날 수 있겠으나,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8월말 수준의 O/W 유지 후 변동성으로 금리 레인지 상단 접근 시 듀레이션 O/W 폭 확대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고 3년 기준 2.77~3.07% 전망, 국고 10년 기준 2.90~3.20% 전망됩니다.

2025년 연간 국고채 순발행규모가 작년대비 33조원 증가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기물 비중이 더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적으로 장기물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의 타이트한 재정정책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고, 수급상 금리 급등 시 매수 수요가 뒷받침될 것으로 보여 중장기적인 금리 방향성은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국인은 6, 7월 동안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수를 지속하였으나 8월 들어 순매수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입니다. 또한 9월 13일 국채선물 만기를 앞두고 롤오버 리스크가 상존하는 가운데, 특히 국채선물 3년 누적 순매수 규모가 고점 수준인 점은 부담 요인입니다. WGBI 편입 기대에도 불구하고, 올해 9월 중 편입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편입이 무산되더라도 지수 편입에 따른 국고채 유동성 여건 개선 기대감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장기물은 장기투자기관의 30년물 매수 수요가 여전히 큰 상황에서 하반기 발행물량은 상반기 대비 감소 예정이라, 30~10년 커브가 스티프닝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고 10-3년 스프레드 5~25bp, 국고 30-10년 스프레드 -20~-5bp 전망하는 가운데, 역캐리 상황 장기화되고 있어 볼 스티프닝 기대 감소할 것으로 보여 2~3년 O/W 폭 축소, 초장기 구간 O/W 지속 운용 계획입니다.

국채 금리가 금리 인하를 선반영한 가운데, 신용 스프레드는 상위등급 중심으로 금리 레벨 부담 등에 기인해 확대됐습니다. 연초부터 이어진 역캐리 상황은 8월 들어 심화되며, 상위등급 회사채 금리조차 CD금리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고금리 채권에 대한 관심 지속되면서 절대금리 메리트 존재하는 비우량 등급 채권 및 장기 크레딧 채권 투자 수요 증가될 전망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레벨 부담 및 분기말 효과 등의 영향으로 약세 지속될 전망입니다. 8월과 마찬가지로, AA등급 여전채의 확대폭이 동일등급 회사채의 확대폭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금리 인하 기대감에 기반한 견조한 수요로 인해 스프레드 확대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절대금리 메리트가 남아있는 비우량 등급 채권 위주의 강세가 등급간 스프레드 축소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9월 특수/국고 3y Spread 20~30bp, 은행/국고 3y Spread 25~35bp, 회사AA-/국고 3y Spread 50 ~60bp 전망됩니다.

본 자료는 고객에 대한 단순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거나 광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외에 게시할 수 없으며 기존 가입고객 이외에는 교부할 수 없습니다.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 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본 상품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시장전망 및 운용계획은 특정시점의 시장상황을 바탕으로 서술한 것으로서 고객과의 합의나 약속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며, 실제의 운용 및 실현 수익률은 시장상황의 변화에 따라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본 자료에 포함된 모든 정보는 당시의 승인 없이 복제되어 유통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종류형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수수료의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의 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한 환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 영국 프루덴셜 금융그룹은 미국의 프루덴셜(Prudential Financial Inc.)과 영국 M&G plc의 자회사인 Prudential Assurance Company의 관계회사가 아닙니다.